

‘승승장구’ 광주 FC… 달아오르는 빛고을

K리그2 전반기 18경기 무패
유망주 엄원상 U-20 맹활약
박진섭 감독 ‘겨울 양복’ 등 화제

올 시즌 누적 관중 2만8606명
9경기만에 지난해 누적 관중 돌파
내년엔 축구 전용구장 개장

프로축구 광주 FC는 2019시즌 화제의 팀이다. 나상호의 이적 공백 우려가 있었지만 펠리페라는 새로운 ‘해결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창단 첫 5연승 속에서 18경기 연속 지지않는 게임을 하고 있다. 팀의 특급 유망주 엄원상은 U20월드컵으로 인기스타가 됐고, 최근에는 박진섭 감독이 ‘겨울 양복’으로 화제를 모았다.

당달아 관중석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안산그리너스와 홈경기가 열린 지난 6일 무더위에도 광주월드컵 경기장에는 4357명의 유료 관중이 입장했다.

이미 올 시즌 누적 관중이 2만8606명이 되면서 지난해 총 관중수도 넘어섰다. K리그 2로 강등된 지난해 광주의 홈 18경기에는 2만8739명의 유료 관중이 찾는데 그쳤다.

올 시즌에는 광주의 신바람 행진 속에 9경기 만에 지난해 관중을 돌파했다. 평균관중도 지난해 1522명에서 3178명으로 109% 증가했다.

날씨와 U20 월드컵이라는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도 이런 결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 있다.

광주는 지난 3월 10일 아산무궁화를 상대로 2019시즌 홈 개막전을 치렀다. 이날 5294명이 경기장을 찾아 올 시즌 최대 관중을 찍었다.

이어진 3월 17일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도 2610명이 입장했지만 4월 7일 안양전과 4월 14일 대전전 관중수가 각각 903명과 932명으로 급감했다.

7일 광주에 비가 이어지면서 8.9mm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봄비치고는 꽤 많은 비가 내렸다. 17일에도 비가 내리면서 경기장을 찾으려던 팬들의 발길을 막았다.

시즌 초반 날씨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광주의 승리가 쌓여가면서 날씨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18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하며 성적과 흥행에서 모두 쾌속 질주를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축구팬들. 이날 경기장은 4797명이 입장했다. (광주FC 제공)

지난 6일 광주의 한낮 기온은 32.8도까지 올랐다. 올해 광주의 최고 기온이었지만 이날 경기장에는 4357명이 찾아 축구를 즐겼다.

광주 입장에서는 U20월드컵의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 점도 아쉬기는 하다.

대한민국을 축구 열기로 몰아넣었던 U20월드컵 대표팀은 지난 6월 17일 귀국했다. 광주의 루키

엄원상도 준우승 멤버로 당당히 귀국길에 올랐다. 하지만 다른 구단들이 U20월드컵 멤버를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동안 광주는 원정길에 나섰다. 6월 24일 수원을 찾은 광주는 6월 29일 대전을 꺾고 7월 6일에서야 안방에서 경기를 치렀다.

날씨와 U20월드컵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광주는 수준 높은 경기력과 성적 그리고 팬서비스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홈 9경기에서 2승 4무 3패 (승점 10)에 그쳤지만 올 시즌 안방에서 치른 9경기에서는 6승 3무 (승점 21)를 기록하고 있다. 매 경기 새로운 주인공이 탄생하고 있고, 박진섭 감독을 포함한 광주 선수단은 경기 끝난 뒤에는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19시즌은 광주 축구의 터닝포인트다. 광주는 2020년 전용구장 시즌을 연다. 광주 팬들은 내년 시즌부터 전용구장에서 차원이 다른 생생한 축구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성적으로 물꼬를 튼 광주의 축구 열기는 전용구장과 함께 더욱 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치홍

KIA 캡틴이 돌아왔다



안치홍, 오른손가락 부상으로 2주간 공백후 컴백
올 시즌 부상에 고전...어제 삼성전서 복귀 신고식
팀 성적 저조·이범호 은퇴 공백 등 주장 무게감 ↑

돌아온 안치홍이 ‘주장 잔혹사’를 지운다. KIA타이거즈의 안치홍이 9일 삼성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

안치홍은 지난 6월 21일 LG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슬라이딩 도중 오른손 중지와 검지를 다치면서 다음 날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다.

인대 염좌로 2주 이상 자리를 비웠던 안치홍은 복귀와 함께 다시 주장 완장을 썼다.

올 시즌 KIA는 주장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고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김주찬이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주장 역할을 맡았지만 초반 성적이 좋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다. 그리고 김주찬은 지난 4월 5일 허리가 좋지 않아 엔트

리에서 말소됐었다.

김주찬은 4월 16일 엔트리에 재등록했지만 좋은 성적은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4월 한 달 김주찬은 0.196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볼넷 2개를 골라냈고 9차례 삼진으로 물러났다.

5월에도 김주찬은 부상으로 신음했다.

5월 9일 두산과의 잠실 원정에서 수비 도중 우측 손바닥을 다쳤고 결국 5월 12일 엔트리에 제외됐다.

주장의 부진과 부상 속에 베테랑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면서 팀의 성적도 곤두박질쳤고, 결국 사령탑이 물러났다.

KIA는 김주찬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 출발하기 위해 시즌 중반 주장 교체를 단행했다.

‘임시 주장’ 역할을 했던 안치홍이 정식 주장으로 팀 전면에 서게 됐다. 하지만 초반 부진을 털어낸 안치홍도 부상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안치홍은 6월 16일 사직 원정에서 자신의 파울 타구에 발목을 맞아 경기 도중 교체됐다.

18일 SK와의 홈경기를 선 안치홍은 19:20일에는 교체 선수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21일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지만 이날 경기에서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

주장이 다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그동안 ‘최고 참’ 이범호가 임시 주장으로 선수단을 이끌었다.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왔던 이범호가 은퇴를 앞둔 만큼 하위권에서 고전하고 있는 팀을 생각하면 안치홍의 주장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게 됐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남은 시즌은 중요하다. 안치홍은 팀을 대표하는 아수이자 ‘에비 FA’다.

안치홍이 그라운드 안팎에서 팀을 이끌며 부족했던 성적까지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효천고 ‘청룡기 16강’ 합류

순천 효천고가 청룡기 16강에 진출했다.

효천고는 9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74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왕중왕전 32강 경기에서 라온고를 3-2로 제압했다.

1회 먼저 공격을 진행한 효천고가 2점을 뽑았다. 투타자 최명경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장대한의 좌전안타가 이어졌다. 이정민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4번 타자 박경식이 우전 3루타로 두 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1회말 수비에서 효천고가 실책으로 바로 실점을 했다.

라온고 투타자 김지찬의 우전 안타에 이어 투수와 포수의 실책이 연달아 기록되면서 1실점을 했다.

선발로 나선 서영준은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종료했다.

효천고는 3회초 이정민의 2루타와 전도형의 적시타로 추가점을 만들었지만 5회말 다시 실책으로 점수를 내줬다.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서영준이 송구 실책으로 무사 2루에 몰렸다. 그리고 정훈석에게 좌전안타를 맞으며 두 번째 점수를 내줬다.

이후 두 팀은 추가 점수를 내지 못하면서 경기는 3-2 효천고의 승리로 끝났다.

광주 동성고를 시작으로 광주일고와 효천고도 16강에 오르면서 청룡기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